

5·18 진상조사위 출범 준비 본격화

재단, 행불자 발굴 등 조사활동 결과 이관 방안 논의 국방부 TF 오늘부터 운영...시행령 제정·예산확보 등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위한 특별법'(특별법)에 따라 향후 꾸러질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를 지원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진상규명대응팀을 꾸린 5·18기념재단은 5·18 행불자 암매장지 발굴 등 그동안 연구·조사 활동 결과를 취합, 조사위에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방부도 5일부터 '5·18진상규명위원회 설치준비TF' 운영에 들어간다.

4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국내외 전문가, 법조인, 언론인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진상규명대응팀(대응팀) 활동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대응팀은 특별법 제정에 따라 출범할 조사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운영해

온 조직이다. 이번 활동 결과는 그동안 확보한 자료와 조사결과를 이관하기 위한 차원이다.

대응팀은 5·18진상규명 주제를 크게 8개로 선정해 워크숍을 두 차례 여는 등 활동을 펼쳤다. 워크숍 1차 주제(2월24일)로 '발포', '교도소 습격설'을 정리한 데 이어 2차(3일)에서는 '지휘체계 이원화', '북한군 개입설', '행방불명자와 암매장', '과잉진압과 5·18 사전 기획설', '계엄군의 광주 양민학살 공소제기 여부', '국제범죄로서의 5·18 진압행위와 국제형사재판소 소추의 가능성'을 연구·조사했다.

5·18 재단 등이 주도해온 행방불명자 암매장 조사사업도 조사위 이관이 검토되고 있다.

재단은 애초 법무부 등과 특별법이 통

과되고 조사위가 설치되면 암매장 발굴조사를 이관하기로 구두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사위 구성·출범까지 6개월 남은 시점을 감안, 그 이전이라도 확실한 증거나 유력한 정보 등이 나오면 발굴 작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기존에 발굴을 진행했던 옛 광주교도소 부지, 옛 너릿재터널 인근 외에 새로운 장소도 확보해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조사위가 출범하는 즉시 진상규명대응팀 결과 보고서와 구체적인 암매장 발굴 후보지 등을 전달할 계획이다.

재단은 5·18진상규명특별법과 관련, 관련자 등에 대한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것을 비롯해 광주에 조사실무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국방부도 조사위를 지원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5일부터 운영하는 5·18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준비 TF는 현역 군인과 공무원 14명으로 구성돼 특별법 시

행령, 하위 규정 제정, 예산 확보 등 준비 작업을 할 예정이다.

최근 활동을 마친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의 자료를 분류해 조사위로 이관하는 업무도 맡는다. 국방부 특조위는 헬기 사격은 사실상 인정했지만 전투기 폭격대기는 조사기간 부족, 자료 왜곡, 군 관계자 진술 거부 등으로 결론을 잠정 유보했다.

김양래 5·18재단 상임이사는 "특별법 안에 5·18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할 수 있는 조항 등이 포함돼 있어 향후 조사위의 활동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법에 따라 출범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국회의장 추천 1명, 여당 추천 4명, 야당 추천 4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펼치며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출범 시기는 오는 9월경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3·1절 마라톤 지방선거 투표 참여 캠페인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4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에서 제53회 광주일보 3·1절기념 전국마라톤 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6·13지방선거 투표 참가 캠페인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안전도 함께 쫓는 마라톤...광주경찰 고마워요”

150여명 전 구간 배치...무사고 대회 숨은 공로

전국에서 2000여명이 참가한 제53회 3·1절 전국 마라톤대회가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들의 숨은 공로로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전국 최고 수준의 대회로 마무리하는 성과를 냈다.

4일 열린 제53회 3·1절 전국 마라톤대회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이날 오전 6시부터 행사가 끝나는 순간까지 각자 자리에서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마라토너들은 이른 시간부터 출동해 각 코스별로 참가자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차량통행에 힘쓰며 마라톤대회 운영에 큰 도움을 준 광주경찰에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특히 대회에 참가한 마라토너들 사이에서는 '경찰의 세심한 교통통제로 걱정 없이 새봄의 정취를 만끽하며 레이스를 펼칠 수 있었다', '포근한 날씨 속에서 전 구간을 지켜준 경찰 덕분에 지난 대회보다 기록이 좋았다'는 칭찬이 이어졌다.

광주경찰청은 3·1절 전국마라톤대회가 처음으로 열린 1954년 이후 이번 대회까지 한차례도 빠짐없이 42.195km에 이르는 구간을 든든히 지켜왔다.

이번 대회에서도 광주지방경찰청을 비롯한 동·서·남부경찰청은 총 150명의 경찰

관과 순찰차 10대, 오토바이 10대씩을 오전 6시30분부터 마라톤 코스에 투입했다.

경찰은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출발해 서구 삼수시민공원으로 끝나는 레이스 구간 곳곳에 배치돼 원활한 경기 진행을 도왔다. 투입된 경찰관들은 경기가 마무리된 오후 2시까지 전국에서 몰려든 마라토너들의 안전을 살폈다.

광주지방경찰청 장승명 교통안전계장은 "전국에서 광주를 찾은 마라토너들이 안전하게 마라톤을 즐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했는데,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한 건의 사고도 없이 마무리 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5·18재단 신임 이사장에 김영진 전 농림부장관

김영진(71) 광주대학교 석좌교수가 5·18기념재단 제13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김 신임 이사장은 제13대 국회의원으로 1988년 국회 광주청문회 청문위원으로 참여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활동을 펼쳤다.

당시 김 이사장은 현장검증위원으로 참여해 광주시 동구 주남마을, 옛 광주교도소 부지를 방문해 암매장 조사를 하기도 했다.

이후 2012년까지 5선 국회의원의(13~16, 18대)을 지내고 노무현 정부 초대 농림부 장관을 역임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57 | 해질 21:57
해짐 18:31 | 달짐 09:00

봄 시샘하는 비바람
오전까지 천둥·번개 동반한 비 내리겠다.

지역	날씨	기온(°C)
광주	흐리고 비	11/12
목포	흐리고 비	7/9
여수	흐리고 비	8/8
나주	흐리고 비	10/11
완도	흐리고 비	10/11
구례	흐리고 비	10/10
강진	흐리고 비	11/11
해남	흐리고 비	8/10
장성	흐리고 비	10/11
보성	흐리고 비	9/9
순천	흐리고 비	9/9
영광	비온뒤 맑	7/9
진도	흐리고 비	9/10
전주	비온뒤 맑	8/9
군산	비온뒤 맑	7/9
남원	비온뒤 맑	8/9
축산도	비온뒤 맑	6/7

◇바다 날씨

지역	바다 날씨	기온(°C)
서해	안바다	북서~북 1.5~2.5
남해	안바다	북서~북 2.0~4.0
남부	안바다	남서~서 0.5~1.5
남서	안바다(동)	남서~서 1.5~3.0
남서	안바다(서)	남서~서 1.5~2.5
북서	북서~북	1.5~3.0
북서	북서~북	2.0~4.0
북서	북서~북	1.5~3.0
북서	북서~북	3.0~5.0
북서	북서~북	3.0~5.0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9:32	04:24	
21:53	16:46	
05:05	11:23	
17:20	23:44	

◇주간 날씨

날짜	날씨	기온(°C)
6(화)	맑음	2/13
7(수)	흐림	2/11
8(목)	흐림	4/8
9(금)	흐림	2/6
10(토)	흐림	-1/11
11(일)	흐림	0/13
12(월)	흐림	2/14

◇생활지수

생활지수	상태
뇌졸중	보통
감기	보통
미세먼지	좋음

오후까지 최대 60mm...8일에도 비

이번 주 광주·전남에 마른 땅을 적시는 반가운 봄비가 내리겠다.

4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5일과 8일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과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고, 그 밖의 날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오후까지 광주·전남지역에는 20~60mm 내외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였다.

기상청은 또 3월 둘째 주(5~9일) 광주의 기온은 최저 2~11도, 최고 6~13도로 전망했는데, 이는 평년 최저기온인 0.1~0.9도, 최고 10.2~11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7일에는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최고 14도 이상 벌어지는 등 일교차 큰 지역이 있을 것으로 관측됐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올해도 섬진강 두꺼비 로드킬 심각

광양 진상면 도로 260여마리...환경단체 “생태통로 시급”

‘섬진강’ 두꺼비들이 매년 산란을 위해 도로를 건너다 떼죽음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들은 두꺼비 로드킬(road kill)을 막을 수 있는 생태통로 확충 등 관련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4일 (사)광양만녹색연합(녹색연합)에 따르면 경칩(6일)을 맞아 섬진강변 일원에서 모니터링을 한 결과 지난 1일 광양시 진상면 비촌마을 앞 도로(왕복 2차로)에서 두꺼비 240마리가, 지난달 28일에는 14마리가 차량에 깔려 죽었다.

이곳은 지난 1974년 수어저수지가 조성된 이래 40년 남도록 두꺼비들이 로드킬을 당하는 대표적인 곳이다.

산에 사는 두꺼비는 경칩을 전후로 산란을 위해 도로를 건너 수어저수지로 이동한다. 두꺼비 성체는 수어저수지로 알을 낳기 위해 이동하거나 되돌아 오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고, 앞서 태어난 새끼 두꺼비들도 산으로 이동하다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녹색연합은 새끼 두꺼비들이 태어나는 오는 5월까지 로드킬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를 막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조사를 시작한 녹색연합은 광양시에 도로 400m 구간에 생태통로 5개를 조성할 것을 요청했으나 지난해 1개를 조성하는 데 그쳤다.

김용희기자 kimyh@

oticon PEOPLE FIRST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오티콘코리아 광주직영점

“서울 본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보조금전용 보청기
- 보청기 테스트 &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